“무죄면 아이들 왜 죽었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절규

가습기살균제총피해자연합, 법원 앞 기자회견

“기업들은 CMIT · MIT 물질 독성 인지하고 사용”

“피해자 있지만 가해자 없다는 판결 납득 불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최근 제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총연합(연합)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기업들은 죗값을 치러야 하고, 정부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은 “판결문에서 언급된 11명의 피해자 중 9명이 영유아이고, 그 중 2명은 사망했다”며 “태어나자마자 갖게 된 폐 손상, 제품이 (폐 손상의) 원인이 아니라면 폐 손상으로 죽거나 아팠던 아이들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CMIT·MIT 물질의 독성과 이 물질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했다는 걸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음을 재판 과정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인과관계 증명에서 동물 실험은 절대적 필수조건이 아니다”라며 “이미 피해자는 존재하고, 이 피해자들은 SK와 애경이 만들어 판 가습기메이트 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해 폐 기능 손상을 입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과 살아있지만,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아내를 잃었다고 밝힌 김모씨는 이날 아내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며 오열했다.

김씨는 “내가 가습기살균제 이마트 PB 상품인 가습기이플러스 제품을 사다가 가습기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당신이 좋아하던 찬양을 마음껏 부르면서 즐겁게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기업인 SK, 애경, 이마트 임직원들의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며 “모두 울분과 분노에 흥분했다. 당신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렇기에 가해기업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그에 대한 배·보상이 끝날 때까지 결코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겠다”고 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천식 및 폐 손상을 입었다고 밝힌 조모씨도 “저희 피해자들은 오히려 그 무죄에 앞서 다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몸이 증거다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또 다른 피해자인 서모씨도 “사람이 죽어야 판결이 날 문제인가. 정부에서 하는게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혹은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 총 11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신봉우 기자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 회원들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들 1심 무죄 선고 법원 규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이·미용업소 방역 수칙 이행 여부 점검

동작구청 관계자가 21일 서울 흑석동에 위치한 이·미용업소를 방문해 마스크 착용 및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완도해경, 가축분뇨 해상 무단방류 농가 적발…합동점검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바다에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버린 농장주 A씨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A씨가 최근 해남군에 위치한 자신의 농가에서 나온 가축 분뇨를 불법 투기한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 위법 사실을 전날 적발했다.

1차 조사를 통해 A씨의 농가 내 분뇨 처리 설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1차례에 걸쳐 소량이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무단투기 기간과 양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완도해경은 이번 적발 사례를 계기로 관내 지자체와 함께 다음달 설 연휴 기간까지 축산농가·양식장 등 해양오염 유발 우려 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 점검을 펼친다.

지도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선 행정 처분 또는 사법 처리를 할 방침이다.

기동취재본부

여수 해양사고 전년보다 33.2% 감소…인명피해도 줄어

정비 불량·관리소홀 원인으로 하는 사고의 비율은 증가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020년 여수해양경찰서 구역 해양사고가 지난해 307척에서 102척(33.2%) 감소한 205척이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여수해경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사고 유형별로는 기관손상이 44척(21.5%)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돌 34척(16.6%), 침수 29척(14.1%), 좌초 27척(13.1%), 접촉 12척(5.9%), 전복·화재 각 11척(5.4%) 등이다.

이어 기타 9척(4.4%), 침몰 7척(3.4%), 키 손상 6척(2.9%), 추진기 손상·운항저해 각 5척(2.4%), 부유물 감김 4척(2.0%), 방향 상실 1척(0.5%) 순이었다.

사고원인 별로는 운항부주의 76척(37.1%), 정비 불량 68척(33.2%), 관리소홀 38척 (18.5%)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 발생 건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정비 불량과 관리소홀을 원인으로 하는 사고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1월이 23척으로 가장 많았다. 1월, 5월·7월, 2월·3월, 9월, 4월, 6월, 12월, 10월, 8월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시기별로는 동절기(11월~2월)가 76척, 농무기(3월~6월)에 70척, 태풍내습기(7월~10월)에 59척이 발생했다.

톤급별 사고는 20t 미만 소형 선박이 164척으로 전체사고의 80%를 차지했다.

전체 사고 중 어선이 129척으로 가장 많은 62.9%를 차지했으며 낚시어선 27척(13.2%), 레저선박 22척(10.7%), 화물선·유조선 13척(6.3%), 기타 8척(3.9%), 예부선 3척(1.5%), 관공선 2척(1.0%), 여객선·유도선 1척(0.5%)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여수해역 해양사고는 해양경찰의 예방활동과 현장 대응 및 구조중심 조직역량 강화로 인명피해는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사고원인 중 운항부주의, 정비 불량, 관리소홀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선장 및 선박 종사자, 해양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충돌 및 좌초, 화재폭발, 침몰, 침수, 전복 등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6대 해양사고의 비율이 지난해 42%에서 58%로 증가했으며, 이 같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접촉사고’ 비율 또한 크게 증가해 선원의 운항 부주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역 내 사고다발해역 지정·관리와 유관기관 및 민간 구조자원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해양사고를 대비 하고 사고시 즉시 출동하는 태세를 강화하고 4차 산업 발전에 맞춰 무인항공기(드론) 등을 이용한 수색구조 등 국민안전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